행복한 청정 건강도시 꿈꾼다

무주군, 2023~2027 5개년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향후 건강도시를 꿈꾸고 있는 무주군이 '군민이 행복한 청정 건강도시 무주!'를 담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군은 지난 4일 군수실에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갖고 무주에 적합한 건강도시 사업발굴과 함께 중·장기 건강도시 발전 전략 추진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병설 교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질병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무주군민의 건강 결정 요인을 분석해 건강의 개념을 도입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2023~2027)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사업 개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주 건강도시 조성 전략으로는 국제적 태권도의 성지화를 축으로 한 체육활성화와 공동체 활동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지역소멸 대응과 함께 무주에서 살고 싶은 무주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조정, 통제해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건강도시로 향하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활인구 중심 인구늘리기 민관공동대응 협약 체결

진안군, 인구감소대응 위해

진안군은 지난 4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12개 기관·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최근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심화로 유관기관 간 인구위기 인식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에 앞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들의 추모를 위한 묵념을 진행,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난 4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12개 기관·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이유로 진안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들이 진안愛 주소 갖기 동참 및 인구문제 공동대응 실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22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무주군은 구인·구직자가 참여하는 '2022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8일 개최한다.

이날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2022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비롯해 채용예정 지역내 사업체 인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2022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채용 중이거나 채용예정인 사업체 16곳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고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옷을 입거나 화장시 돋보이게 하는 색 컨설팅), 진로 타로(진로심리검사) 검사, 이력서 부착용 사진촬영 행사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 기전대학 산학협력단(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채용 중이거나 채용예정인 사업체를 연계하고 당일에 구직자 상담 및 이력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앞서 군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무주군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다.

자격증 취득과정은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비 공모사업, 1억 원)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진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과정은 8명이 수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현황 논의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 개최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은 지난 2일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한 5개 분과 18개 팀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5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정 예정인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과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홍보 방법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의 관건은 출향인 및 관계인구에 달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사회복지시설 등 7곳 현장 점검

최훈식 군수가 지난 3일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행보다.

여성청소년문화센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한 최 군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살펴서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운영 개선 등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 상담홍보전 참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일~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창조룸에서 '2022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하 전북 상담홍보전)에 진안군을 대표해 참가했다.

수도권에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전북 상담홍보전은 '신바람 귀농귀촌, 전라북도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전북 상담홍보전'은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권역별 특색에 따라 '산', '바다', '들'로 나눴으며, 이 중 진안군은 '호남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진안고원이 위치한 만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과 함께 '산' 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진안군은 군청 담당 실무자와 전문상담 멘토로 구성된 팀을 꾸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공산림 사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무주군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공산림가꾸기 작업현장인 향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실시된 근로자 안전교육은 공공산림근로자 9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앞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묵념을 했다.이날 교육은 '임업(산림작업) 안전길라잡이 목록, 교재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신정호 산림조성팀장이 안전교육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임업 안전관리 5대(벌목,조재,집재,운반,가지치기) 사망 작업 예방교육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안내 보호구 안내 및 착용법 교육 안전보건 관리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교육 등이다.이에 현장 근로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발생사고 유형, 안전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사고발생시 조치방법 등의 내용을 숙지했다.

/무주=전문선기자